

2024년 8월 30일 제39호

연구위원 김남훈  
연구위원 김종현  
연구위원 서유나

# HIF 월간 산업 이슈(8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산업별 주요 이슈

#### 반도체

#### AI 거품론 속 반도체 고점 우려는 시기상조

- 최근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이끌었던 AI 업계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수요 버블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
- 우려와 달리 2분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과 PC, 모바일 등 전통 응용처에서의 수요 증가 등으로 당분간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은 견조할 전망

#### 조선

#### 중국산 후판 공급 과잉에 따른 후판 가격 하락으로 건조 수익성 개선 기대

- 최근 中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철강 수요 위축과 중국의 과잉생산 및 밀어내기의 영향으로 선박용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와 철강사 간의 후판가 협상에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한편, 대규모 수주잔량에 따른 조선사의 가격 교섭력 상승 및 선별수주 움직임에 따른 신조선가 상승과 후판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이 더해지면서 국내 조선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유통

#### 티메프 사태, 중소커머스 폐업 및 상위권 업체로의 쏠림 야기

-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액이 1.3조원까지 불어나며 정부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한편 오픈마켓 신뢰성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이어지며 온라인 셀러의 대형업체 위주 입점 쏠림 현상이 확대
- 소비심리 위축과 겹쳐 최근 사태에 따른 소비자 및 판매자 이탈 등으로 중소 이커머스업체들의 폐업과 서비스 중단이 늘고 있어 상위업체 중심의 소비자 락인효과가 커지고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

# 산업 이슈

## 반도체

AI 거품론 속 반도체 고점 우려는 시기상조

## 조선

중국산 후판 공급 과잉에 따른 후판 가격 하락으로  
건조 수익성 개선 기대

## 유통

티메프 사태, 중소커머스 폐업 및 상위권 업체로의 쏠림 야기

## C26. 반도체

### AI 거품론 속 반도체 고점 우려는 시기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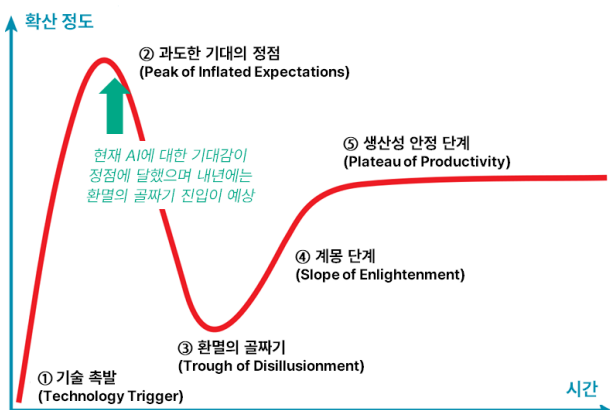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최근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이끌고 있던 AI 업계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수요 버블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 그러나 우려와 달리 2분기 주요 반도체 기업 들은 데이터센터용 HBM 수요 폭증과 D램, 낸드플래시의 평균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양호한 실적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 글로벌 경기 부진, 저매출 장기화 등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속도가 주춤해질 수 있으나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 프리미엄 제품 및 PC, 모바일 등 전통 응용처에서의 수요 증가 등으로 당분간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은 견조할 전망

#### ■ 최근 'AI 거품론'에 따라 GPU를 비롯한 반도체 수요 버블에 대한 예측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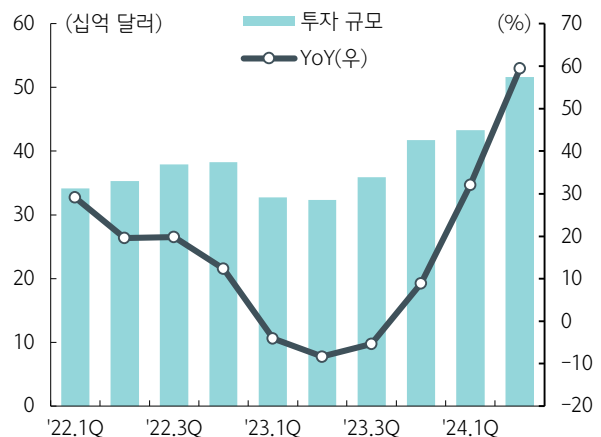
-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이끌고 있던 AI 업계가 향후 수익성을 담보하고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불안감이 확대
-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향후 AI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주장
  - 혁신적 기술은 기술 촉발 → 과도한 기대의 정점 → 환멸의 골짜기 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확산 하는데, 현재 AI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환멸의 골짜기에 진입했다고 분석
- 글로벌 투자 업계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성이 과장되었다고 경고하면서 지난 1년간 AI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주춤해질 것을 우려
  - '24년 2분기에 이뤄진 AI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9.5% 증가한 516.2억 달러

그림1 | 하이프(Hype) 사이클과 AI



자료 : Gartner, 하나금융연구소

그림2 |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현황



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4개사의 Capex 합산  
자료 : 각 사 자료

■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2분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

-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과 SK하이닉스의 '24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각각 22.6%, 33.3%로 직전 분기 대비 14.3%p, 10.1%p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실적 또한 영업이익률이 직전 분기 대비 4.2%p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 불안과 달리 반도체 산업의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반도체 장비 제조업 상위 10개사 합산 영업이익률: 7.8%('24.1Q) → 12.0%('24.2Q)
- 데이터센터向 HBM 수요 폭증과 D램, 낸드플래시의 평균판매단가 상승 등이 주요 실적 호조 원인이며, Capex 확장에 따른 설비 투자로 장비 업계 또한 실적 호조가 이뤄짐

■ AI Hype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공급조절 감안 시 당분간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은 견조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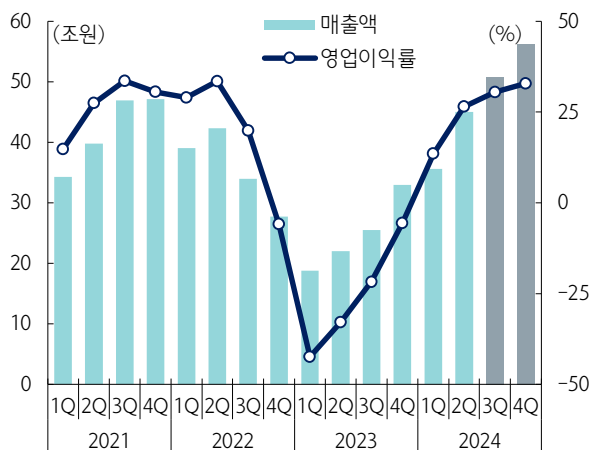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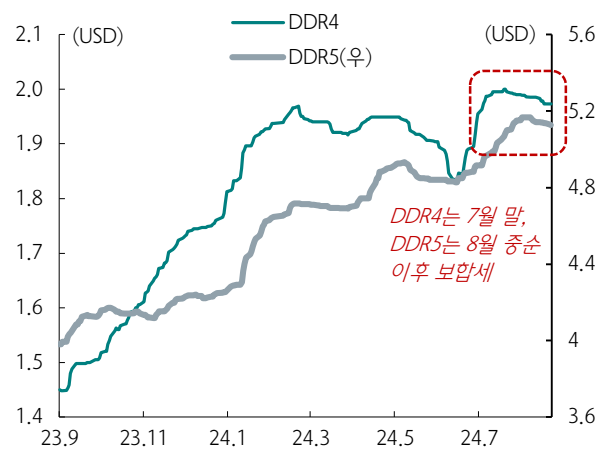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부진, 저매출 장기화 등에 따라 AI 관련 투자 속도가 조절될 수 있으나, 인프라 구축에 있어 물리적(하드웨어적) 측면을 담당하는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7.3%씩 성장해 '30년에는 1,17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올해 하반기 AI 서버向 프리미엄 제품 수요와 PC, 모바일 등 전통 응용처에서의 수요 증가 등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D램 가격은 7월 말부터 보합세를 보였으나 연말까지는 IT 세트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HBM 및 고용량 D램은 높은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25년도에는 거시적 불확실성, 미 대선 및 미중 갈등에 따른 규제 정책 변화, 공격적 설비 투자에 따른 수급 악화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최종 소비자인 개인·기업의 수용을 이끌어 낼 킬러 앱 등 AI 응용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된다면 IT 제품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여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고점)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 

그림3 |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주: 삼성전자 DS부문과 SK하이닉스 실적 합산, '24년 3Q 및 4Q는 전망치  
자료: DART, 하나금융연구소 추정

그림4 | 반도체 가격 동향



주: DDR4 8Gb(1G×8), DDR5 16Gb(2G×8) 현물가 기준  
자료: Dramexchange

### C31. 조선

## 중국산 후판 공급 과잉에 따른 후판 가격 하락으로 건조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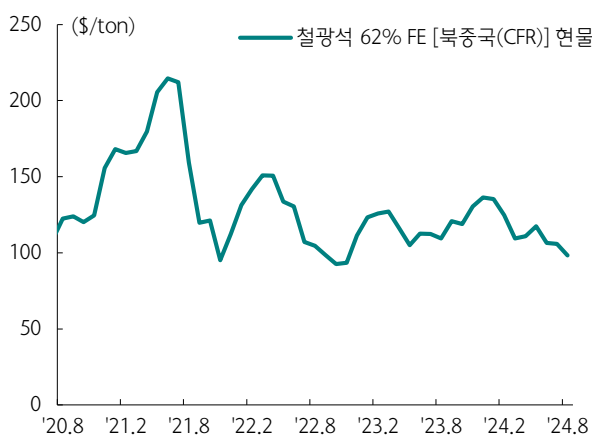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최근 중국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철강 수요 위축에 따라 철광석 및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선박용 후판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 아울러 중국의 과잉 생산 및 밀어내기 수출이 국내산 후판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조선사와 철강사 간의 하반기 후판가 협상에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판은 선박 건조 원가의 약 20%에 달하므로 후판가 등락은 조선사 수익성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작용. 다년간의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신조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후판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국내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中 경기부진 및 철강 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으로 국내 후판가 역시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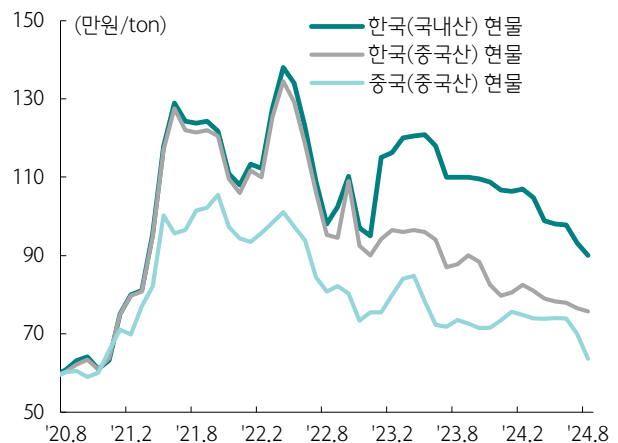
- 中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글로벌 철강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철광석 수요와 가격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과잉생산 및 수출량 증가로 인해 후판 가격 역시 낮아지는 중
  - 철광석(중국 수입 현물가) 가격 (\$/톤) : 108('20) → 160('21) → 120('22) → 120('23) → 98('24.8)
- 국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철강사와 조선사간의 협상에서 합의된 선박용 후판 가격은 톤당 90만원대 초반으로 '22년 4월을 고점(138만원)으로 하여 지속 하락 중
  - 국내 철강사와 조선사는 후판가 협상을 반기마다 진행해왔으며 8월 말 현재 하반기 협상 진행 중
- 한편 중국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조강 생산량 감소로 인해 철광석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내 철강사들은 후판가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림5 |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 Korea PDS

그림6 | 중후판 20mm 가격 추이



자료 : Korea PDS

■ 후판은 선박의 핵심 자재 중 하나로 후판 가격은 선박 건조 수익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

- 후판은 선박 건조의 핵심 자재로 후판가 등락은 건조 수익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일례로 '21년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후판가 상승으로 국내 조선사의 적자폭이 확대
  - '21년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각각 8,960억원, 3,720억원, 1.3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8.9%, -39.1%, -19.8%를 기록
- 후판이 선박 건조 비용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조선소와 국내 조선소의 후판 조달 가격 차이는 선박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중국 조선사들이 사용하는 현지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70만원대로, 올해 상반기에 국내 조선사와 철강사간 협상한 국내산 후판 가격보다 약 20만원 가량 저렴한 상황
  -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비중을 20%에서 25%로 상향

■ 지속적 선가 상승에 후판가 하락세가 더해지면서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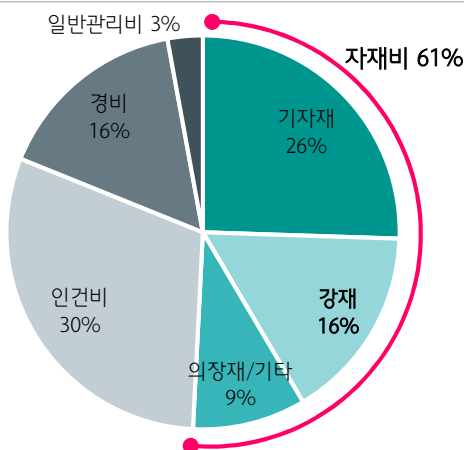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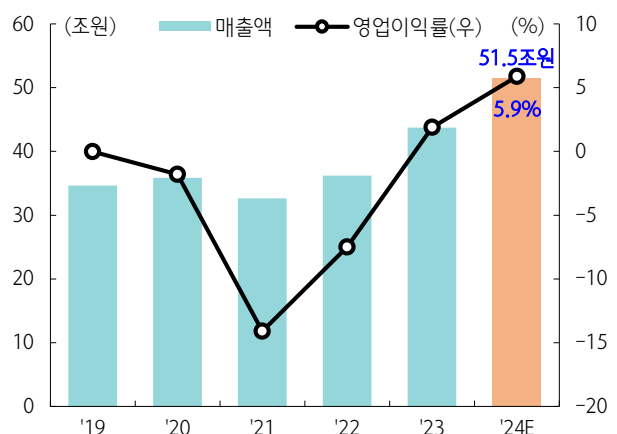
- 대규모 수주잔량을 확보한 국내외 주요 조선사들의 가격 교섭력 상승과 선별 수주 움직임 속에 신조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조선업체들의 중장기 매출은 성장할 전망
  -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P) : 125.6('20) → 153.6('21) → 161.8('22) → 178.4('23) → 188.8('24.8)
  - 중국 조선업체는 '23년 건조량(1,815만CGT) 기준 약 4.1년치의 수주잔량(7,465만CGT)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은 '23년 건조량(923만CGT) 기준 약 4.2년치의 수주잔량(3,911만CGT)을 확보
-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의 고부가 선박 중심 건조량 증가와 후판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의 건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조선소 신조 인도량(백만CGT) : 9.2('23) → 10.7('24E) → 11.5('25E) → 10.1('26E) → 7.8('27E)
  - 국내 조선업 영업이익률 (%) : -1.8('20) → -14.1('21) → -7.5('22) → 1.9('23) → 5.9('24E) 

그림7 | 국내 조선업 원가 구조



자료 : DART, 하나금융연구소

그림8 | 국내 조선업 실적 전망



자료 : ValueSearch,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 G. 유통

### 티메프사태, 중소커머스 폐업 및 상위권 업체로의 쏠림 야기

연구위원 김남훈

※ Summary :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액이 1.3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정산기한 단축, 이커머스업체의 PG기능 분리, 에스크로 의무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 규제 강화에도 온라인 셀러의 오픈마켓 신뢰성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이어지며 유통사 및 대형 플랫폼 위주로 입점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경쟁 구조에 변화가 예상. 특히 소비심리 위축과 겹쳐 최근 사태에 따른 소비자 및 판매자 이탈 등으로 업력이 오래된 오픈마켓형 중소 이커머스업체들도 폐업과 서비스 중단이 늘고 있어 상위업체 중심의 소비자 락인효과가 커지고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

#### ■ 티메프 사태 發 피해액 1.3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과 관련 규제 강화 예상

- 금감원에 따르면 집계된 미정산 피해액은 1.3조원, 피해업체는 4.8만개에 이르고 피해 규모(1억원 이상)가 큰 소수가 피해액의 대부분(88.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
  - 미정산액이 1백만원 이하인 업체들이 69.3%, 1천만원 이하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
-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PG업무(결제대행) 분리 및 정산기한 단축, PG사의 인적·물적 요건 강화 및 에스크로 의무화 등 전자금융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
  - 부재하던 정산주기를 40일로 제한하고, 이커머스업체들의 PG등록, 제3자 위탁 의무화 예정
- 소수 업체를 제외하면 판매자 피해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나 유사 사업모델을 갖던 커머스업체 '알레츠'를 포함 다수가 폐업하며 이커머스업체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커진 상황
  - 알레츠는 티메프와 유사한 오픈마켓으로서 '23년 영업손실액이 104억원이며 자본잠식이었던 상황

표1 | 금액대별 미정산금액 분포 (단위: 개, 억원, %)

구분	판매점 수	비중	금액	비중
~ < 1백만원	33,350	(69.3)	76	(0.6)
~< 1천만원	10,143	(21.1)	338	(2.6)
~ < 1억원	3,650	(7.6)	1,114	(8.7)
~ < 10억원	773	(1.6)	2,253	(17.6)
~ < 30억원	134	(0.3)	2,249	(17.6)
~ >30억원	74	(0.2)	6,759	(52.9)
계	48,124	(100.0)	12,789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표2 | 업종별 미정산 금액 분포 (단위: 개, 억원, %)


구분	판매점 수	비중	금액	비중
디지털·가전	4,607	(9.6)	3,708	(29.0)
상품권	28	(0.1)	3,228	(25.2)
식품	8,479	(17.7)	1,275	(10.0)
생활·문화	14,422	(30.0)	1,129	(8.8)
패션·잡화	6,759	(14.0)	801	(6.3)
여행	287	(0.6)	795	(6.2)
뷰티·헬스	3,097	(6.4)	481	(3.8)
전자상거래	14	(0.0)	415	(3.2)
스포츠·레저	3,209	(6.7)	254	(2.0)

자료 : 기획재정부

### ■ 규제 강화와 셀러 보호 움직임 속에 대규모 자본력과 빠른 정산주기, 기술력을 갖춘 대형 유통사,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불가피

- 정부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당분간 판매자들의 보수적인 입점 행태가 이어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대형 셀러 유입을 위한 노력이 겹쳐지며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변화 예상
  - 유통사 및 대형 플랫폼 위주로 정산주기 단축, 입점 수수료 면제 등으로 마케팅 강화
- 대규모 자본력과 빠른 정산주기, 자체적인 배송시스템 등 온라인 셀러들에게 소구력이 높은 대형 커머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상승과 시장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 높음
  -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등은 2~3일내 정산완료, 자체 배송망 구축 또는 물류사와 협력강화

### ■ 한편 제도 변화에 따른 경영 부담 상승과 소비자 이탈로 중소 커머스 플랫폼의 리스크 부각

- 오픈마켓 플랫폼의 결제 계좌 분리화 에스프로(결제대금예치) 등 판매 대금 보호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 스타트업형 플랫폼들의 시장 진입과 사업 운영에 어려움 가중
- 특히 티메프, 알레츠 등 오픈마켓의 신뢰 저하에 따른 소비자 및 판매자의 연쇄적인 이탈과 이에 따른 재무 리스크가 가중되며 업력이 짧은 이커머스업체의 위기감 고조
  - '오늘의집' 등 오픈마켓형 플랫폼 외 직매입형 이커머스업체도 자본잠식 알려지며 이용자 감소
- 한편 직매입형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프랜차이즈, 백화점 등 위탁 판매의 경우도 결제대행업무의 분리 가능성이 존재해 운영 부담이 늘어날 전망
- 알리, 테무 등 직구의 국내 영향력 확대 속에 티메프 사태 등으로 상위업체 중심의 소비-판매자 락인 효과가 커지며 이커머스 시장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
  - 국내 이커머스 상위 3개사의 거래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70% 수준인 것으로 추정 

**표3 | 중소 오픈마켓형 이커머스업체의 폐업 사례 증가**

기업	분야	회원수/(MAU)	오픈/폐업
알레츠	가전·가구	120만명 (140만명)	'15년 오픈/ 서비스 종료(8.31)
바보사랑 (웹이즈)	문구· 생활용품	-	'03년 오픈/ 폐업(6.30)
1300K	문구· 생활용품	350만명	'01년 오픈/ 종료 예정(9.30)
사자마켓	공동구매	10만명	'22년 오픈/ 종료 예정(9.30)
한스타일 (리앤한)	명품·패션	-	'15년 오픈/ 종료 예정(10.5)

주 : 알레츠는 23년, 1300K는 20년, 사자마켓은 22년 회원수 기준  
자료 : 보도자료, 하나금융연구소

**표4 |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기업	거래액(조원)	월간이용자수(MAU,만명)
네이버	35	N/A
쿠팡	62	3,129
11번가	6	712
G마켓	9	497
카카오	8	N/A
티몬	-	437
위메프	5	432
타오바오	6	837
롯데몰	4	-

주 : 거래액은 2023년 기준, MAU는 24.6월 기준  
자료 : 이데일리, ECDB, 하나금융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mailto: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